

Open Doors

2020. 10. Vol. 222

박해와 선교현장

인도 *India*

한국전쟁 70주년 북한기도 특집

코로나19 긴급구호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COVID-19 와 하나님의 선교

배준섭 교수(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한국오픈도어 이사)

Covid-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지구촌의 문화적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사람들은 예전의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다. 소위 '뉴노멀'(New normal: 새 일상)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Covid-19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격리(quarantine)를 가져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접촉 문화를 양산했고, 이로 인해 도시와 국가 심지어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놀이 문화나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단절과 봉쇄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점에서 Covid-19는 한 동안 통제 불가능한 세력으로서 지구촌에 급격한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고 뉴노멀 문화를 정착시킬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Covid-19 현상을 인간범죄와 관련된 타락의 결과로 이해함에 따라 그릇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선교적 장벽으로 인한 선교무용론이나 선교활동의 정체(停滯)를 당연하게 교회가 수용하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데 있다. 혹은 교회가 세대의 문화적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구획화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따른 이원화된 선교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파송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비가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부터 일시적으로 귀국하면서, 세계 선교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교회들은 예배와 집회 등이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됨으로써 코로나 이전의 생명력 넘치는 모임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Covid-19를 어떻게 인식하고, 선교적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사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선교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의식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복음사역에 더욱 헌신하였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는 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Covid-19는 구약성경 레위기 13-14장의 차라아트(חַרְאֵת)와 상당한 유사적 특성을 공유한다. 차라아트는 개역개정판에서 '나병'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은 의학적으로 전염병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가 아닌, 택한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는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성찰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는 이 세상의 도덕성이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은 사람들 간 관계단절과 인종차별, 특정한 자들에 대한 혐오와 비방을 비롯해 일부 폭력사태까지 불러왔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일정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무시함으로써, 잠재적 무증상 환자들이 증가하는 데 일조했다. 국경은 폐쇄되고, 백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진국부터 확보되었다. 소위 부와 능력이 생존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은 해,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함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회는 이상과 같은 복음적 삶을 실천하면서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셨다. 비록 현재 지구촌이 Covid-19로 인해 대격변을 겪고 고난받는 교회들이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이뤄가고 계신다. 그렇다면 교회의 갈 길은 너무도 명확하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교회는 나아가야 한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08



12



14



16



18

- 04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 - 3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인도
- 12 현장스토리 1 - 인도, '아만' 목사 이야기
- 14 현장스토리 2 - 인도, '마헤시' 목사 이야기
- 16 사역보고 1 - '디지털 바이블' 사역
- 18 사역보고 2 - 코로나19긴급구호와 제2국면
- 20 뉴스와 업데이트
- 22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광고

OpenDoors 2020년 10월호 | 통권 22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3

DAY 6. 하나님께서 북한 내지 문을 여시다

국제오픈도어 본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추어 북한을 위한 “7일 기도” 특집 패키지를 만들어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난 역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5일에는 4대째 내려오는 북한 성도의 강력한 간증을 소개하고, 6일에는 북한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비밀 편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오픈도어 사역자의 인터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연재하며 이번호에는 오픈도어 북한사역이 시작된 이야기와 기도를 심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8)

“북한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 오픈도어 북한사역의 시작

신실한 크리스천인 피터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알 수 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중국 깊숙이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믿는 이들 그룹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할머니 성도가 작은 성경책 20권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피터는 그것이 이상한 요청으로 생각되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피터는 작은 성경책들을 가지고 같은 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성경책

들을 받자, 그 할머니 성도는 또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성경책을 더 갖다 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찬송가책도 가능할까요?” 할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피터는 다시 몇 달 후에 작은 성경책들과 찬송가책들을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성경전달은 몇 달째,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한 요구를 채우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정을 기적적으로 준비 해주셨습니다. 피터는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감사의 비밀편지를 받고서야 자신이 세계 최악의 억압 국가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고난의 행군 동안에, 성경뿐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 전달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픈도어 북한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세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오픈도어는 식량, 의약품, 후원금, 기독교 서적 및 자료들과 같은 도움으로 북한의 성도들을 돕고 북한의 교회가 굳건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온 비밀편지는 그동안 전달된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전달된 기

독교 자료들은 제때에 안전하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을 바치리라는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명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후원과 지혜로운 인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력한 믿음과 사랑으로, 영적전쟁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고생하고 있는 소박한 성도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때 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승리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백 배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과 여러 모든 후원자님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전달품들이 여러 검문소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시골과 깊은 산간오지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공적으로 이 물품들이 전달되기를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도록, 예수의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 준비된 영혼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전달된 물품들을 마을 안에서 나누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힘든 시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도록 기도해주세요.

전파를 통한 전도와 제자훈련 - 라디오 사역

라디오 사역은 북한 내외 지리적 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핵심 사역분야 중 하나입니다. 라디오 프로젝

트들을 통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한 여러 크리스천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성도들이 성경공부, 기도, 찬송, 성경적 생활가이드 등으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북한 성도들은 방송 패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역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내 자기들이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감사 드립니다. 전파수신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보통은 문제 없이 잘 들립니다...한번은, 방송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나온 후에, 한 외국인 성도가 보낸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감사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북한 성도들의 삶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과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작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시나리오들을 쓰도록, 스텝과 패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와 말을 통해 그러한 친밀함이 전달되기를, PD들이 북한의 귀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라디오 방송국과, 라디오 주파수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스텝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비밀리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시편32:7) - 안전가옥과 은신처

한 탈북자 분은 말합니다, “나는 북한을 탈출한 후에 중국의 한 안전가옥에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안전가옥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중국 현지 크리스천들과 함께, 오픈도어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위한 안전가옥들을 운영합니다. 현지 파트너는 먼저 탈북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성경에 대해 더 배우려고 하는 관심이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되면 다시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와 함께 비밀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탈북자는 교육을 받습니다. 만일 그가 더 집중적인 교육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 이틀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공부를 합니다. 요구에 따라, 더 심화된 신앙교재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민수는, 지금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인데, 중국으로 탈북한 뒤 오픈도어 안전가옥에 머무는 동안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처음 안전가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의문들이 있었지만, 우선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가옥에 들어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이순간도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우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남한 사역단체들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탈북자들 중 많은 수가 이런 안전가옥들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둘러보니, 이 사람들이 통일 후에 북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안전가옥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가옥과 은신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전가옥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과, 현장 사역자들, 현지 파트너들 위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현장사역들로 하여금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때 무슨 말을 해야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탈북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이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 탈북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사역기회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안전가옥 안에서 북한 출신의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만납니다. 러시아에서 이들 북한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북한에서 오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이 담대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인신매매 당한 탈북여성 성경공부

중국의 깊은 숲 속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여성들을 위한 비밀 성경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자매들은 식사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 중 일부는 여름과 겨울에 있는 집중 성경공부 시간에 참가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전세계 크리스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많은 경우,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온 탈북 여성들은 식량과, 일자리와 때로는 자유를 찾아서 탈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법 브로커들에게 속아 외딴 시골 오지에 사는 중국인 남편에게로 팔려갑니다. 이 탈북여성들이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도 적응하려면 여러해가 걸립니다. 대개

이들이 팔려가는 가정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큰 고통을 겪은 이 탈북여성들에게 그러한 일은 너무 가혹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또 다른 기회를 찾아 그 중국 가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또한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곳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사 같은 선생님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200명이 넘는 탈북 여성들이 예수님께로, 또 성경공부 모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매들 중 100여 명이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정기적인 교제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이 탈북 자매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탈북여성 성경공부 모임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던 오픈도어 사역자 한 분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함께 이같이 기도합시다: “이 자매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하루하루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매일 매일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분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일용할 양식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공부 모임을 보호해주사 위험한 고발을 당하거나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자매님들을 축복하사 이들이 사랑과 지혜로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그 가족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매님들의 조국인 북한을 축복해주옵소서 북한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2020년, 북한과 북한의 성도들은 유례없는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발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폐쇄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 거의 모든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모든 공식 모임들과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봄에는 기근이 찾아왔지만, 국경 폐쇄로 인해 물자의 반입이 줄어들어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픈도어 프로젝트들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 속에 지하교회 교인들도 비밀예배를 전보다 더 작은 소그룹으로 쪼개서 드리거나 아예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합 3:17-19)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들이 이 혹독한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느8:10)”는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통로들을 여셔서 북한의 성도들이 전세계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가는 후원금과 물품들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사역을 위한 힘을 주시기를, 모든 프로젝트와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인도 India



인구 : 1,368,738,000 명(13억6천8백만 명)
 주요 종교 : 힌두교(72.5%), 이슬람교(14.4%)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66,194,000 명(4.8%)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10위, WWL2019- 10위
 기독교박해 지수 : 83점
 주 박해 요인 : 종교적 민족주의, 부족공동체의 적대감

인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인도는 헌법상 세속국가이지만 힌두교도들은 이를 바꾸어 힌두교를 국교로 만들기 원한다. 힌두 과격파들은 인도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없애기 원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힌두 과격파들이 크리스천들을 인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고 힌두교로 돌아오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는다. 1990년대 이후로 힌두교는 훨씬 폭력적이 되었다. 반대

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용,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점점 줄어들었다. 2014년 강경파 힌두교 정당인 BJP 당의 모디가 총리가 되면서 힌두교 과격파들이 자행하는 폭력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 2019년 총선에서 BJP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특정 빈곤 지역들에서는 '낙살라이트' 라고 불리는 마오이스트(모택동주의) 공산주의 민병대들이 장악하여 크리스천들이 감시와 박해, 폭력, 납치, 살해, 공개처형까지 당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사적인 영역** :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힌두교 과격파들에게는 전도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처음에는 개종한 이들만 표적이 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기독교 메시지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천들의 사적인 기도도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위협이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반 기독교 정서가 증가해서 이제는 시골뿐 아니라, 동북부의 두 세 주를 제외한 인도 전역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조차 위협해졌다. 물론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도행위로 여겨져 사회적 적대감을 일으킨다. 힌두교 과격파들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제개종'으로 부르며 '반개종법'에 의해 크리스천들을 고발한다. 고발되면 신체 폭력, 경찰구치소 구금 등을 당한다.

• **가정 영역** : 2015년에 인도 대법원은 비힌두 부모가 힌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여전히 크리스천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 크리스천 아동들은 학교에서 힌두교적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 힌두교 신화, 힌두교 문학, 요가 등을 배워야 하고,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천 학생들도 힌두교 축제와 힌두교 의식에 참가해야 한다. 크리스천 아동들은 공동체로부터 점점 더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이는 크리스천들은 지역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믿는 힌두교 근본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의 아이들이 특별히 표적이 되고, 이는 다른 크리스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지난 5년간 당국자들과 수많은 힌두교 과격단체들에 의해서 크리스천들과 그 활동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해왔다. 그들의 목표는 전도를 막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방해 사례들이 전례 없이 증가했다. 크리스천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은 인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크리스천들은 지역공동체의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 받고 있다. 식수 및 기타 자원들, 목축을 위한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마을을 떠나도록 강요한다. 과격파 힌두교도들은 개종한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넣으며 '재개종'을 의미하는 '가르 왁시(Ghar Wapsi : 홈커밍)'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다.

• **국가영역** :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반개종법이 존재하고 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주에서 더 통과됐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고 제한한다. 인도 헌법 25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질서의 지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인도 언론은, 특히 인도어로 발표되는 언론들은 대개 크리스천들에 대해 편향적이고 시골 지역에서는 매우 적대적으로,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증오연설과 선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준다. 1990년대 이후로 힌두교 과격파들은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한 힌두교 지도자는 2014년에 2021년까지 인도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근절하기 바란다는 발언을 했었다. 비현실적인 발언이지만 대부분의 힌두교 지도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경향이고, 유사한 증오연설들이 주기적으로 행해졌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유인책을 써서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다고 계속 비난한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공격과 범죄들은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이 지난 5년간 급증했다. 정부에 의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감시는 봉쇄된다.

• **교회영역** : 교회 활동들은 감시를 받고, 제한을 당하고, 방해와 훼방을 당한다. 정부가 끊임없이 크리스천 활동을 감시하고 많은 규제를 가한다. 반개종법과 신성모독법 등으로 해외 후원금, 선교사 초청, 등록 과정에 많은 제한이 있다. 힌두교 과격파들은 지난 몇 년간 반기독교 활동들을 늘려왔다. 힌두교 폭도들의 습격, 폭행, 고발과 체포 유발, 주거지에서 추방 등이 늘어났다. 힌두교 과격파들은 대부분 이러한 활동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독교 자료들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해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과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모니터링(감시) 되고 있다. 교회가 국제사회의 세계교회들과 교류하는 것을 제한한다. 정부는 해외선교사들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는 엄격한 규정들을 세웠다. 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특별한 비자타입을 요구하며, 현재 워크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크리스천들이, 100명 이상, 추방되었다. 인도에서 태어난 외국인들도 기독교 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많이 추방되었다. 크리스천들을 공격한 힌두교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위험해졌다. 소셜 미디어 상의 살해협박들, 개인정보 공개와 기타 다른 형태의 공격들 수준이 증가해왔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힌두교도나 편향된 판결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힌두 민병대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 크리스천이 학교나 자선단체를 세우거나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WL2020 인도 박해보고

(2018년11월1일~2019년10월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9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497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302명
공격받은 교회 수	34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수	54건

** 2019년 전체 통계로는, 825건에 이르는 사례들에서 총 43,392명의 인도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WWL2020 기간 박해 사례

- 2019년 1월9일, 강경파 힌두교도들이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군투르 지역 무팔라 만달, 나르네파두(Narnepadu) 마을에 있는 교회 건물을 파괴했다. 교회건물이 힌두교의 건물 배치 원칙들에 위배된다는 것이 파괴의 이유였다.
- 2019년 4월10일, 자르칸드 주에서 한 부족 크리스천 형제가 힌두교 과격파 군중에 의해 칼과 낫, 쇠파대기 등으로 공격을 받고 살해당했다. 힌두교도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도살했다는 혐의가 있다

는 것이 살해의 이유였다. 같은 공격으로 3명의 다른 크리스천들도 부상을 당했다.

- 2019년 10월2일, 텔랑가나 주의 하이데라바드 외곽 바살라마리(Vasalamarry) 마을에서 힌두교 과격파들 약 30명이 크리스천들이 생일축하 모임을 하고 있는 집을 습격하여 하객들을 위협하고 파괴와 약탈행위를 했다.

2020년 1월~3월 기간 박해 통계



2020년 1월~3월 기간 인도에서,

- 1,022명의 크리스천이 정신적 학대를 당함
- 2명의 크리스천이 성폭행을 당함
- 1명의 크리스천이 강제결혼을 당함
- 2명의 크리스천이 납치를 당함
- 521명의 크리스천이 공동체에서 배척당함
- 113명의 크리스천이 강제로 다시 개종함
- 453명의 크리스천이 허위고발을 당함
- 127명의 크리스천이 강제이주를 당함
- 5명의 크리스천이 기독교식 매장장례를 거부당함
- 14건의 교회 재산 파괴와 약탈
- 42가구의 주택 파손과 재산 몰수
- 3건의 사업장, 일자리 빼앗김

*오픈도어에 직접 보고된 사례들만의 통계이므로 실제 박해사례는 훨씬 더 많음.

최근 박해 사례

- 6월20일,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하리아나 주 파리다바드 시내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한 교육센터를 공격하고, 힌두교 신상을 내부에 들여놓음
- 7월27일, 편잡 지방의 한 도로에서 개신교 목사가 폭행을 당하고 머리 뒤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를 입은 시체로 발견됨
- 8월11일, 하리아나 주 파리다바드 시에서 힌두교 과격파 15-20명이 심방 중인 개신교 목사 가족을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 중상을 입음

인도 개신교회

전승에 의하면, 기원 1세기에 사도 도마가 인도로 와서, 주로 케랄라(Kerala) 주에, 첫 교회들을 세웠다. 첫 성도들은 BC 562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인도에 온 것으로 믿어지는 코친(Cochin)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개종한 이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4세기에 중동에서 여러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러 인도에 왔다. 인도 남부(Kodungallur)에 세워진 시리아 크리스천들의 정착촌이 남인도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로서 그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리더는 가나의 도마(Thomas of Cana)였다. 이후 중세 15세기에는 포르투갈 식민세력과 함께 여러 카톨릭 수도회 소속 선교사들이 들어와 해안지역을 따라 교회들을 세웠다. 최초의 개신교회 선교사들은 독일 출신의 루터교인, 바르톨로뮤와 하인리히 두 사람이었다. 이들은 1705년 타밀 나두 지역의 타랑감바디(Tharangambadi)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후 1793년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세람푸르, 캄카타 등에서 사역하며 성경을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및 여러 언어와 방언들로 번역했다. 캐리는 1834년 소천하기 까지 인도에서 사역했다. 19세기에 여러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인도 북동부 지역을 선교했다. 오늘날까지 인도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북동부 지역의 나가족, 카시족, 쿠키족, 미조족 들이다.

인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5,273,000명(8.0%)
카톨릭	20,876,000명(31.5%)
개신교 기성교단	22,700,000명(34.3%)
독립교단	19,486,000명(29.4%)
무소속	174,000명(0.3%)
이중소속	-2,314,000명(-3.5%)
합계	66,195,000명(100%)

인도를 위한 기도와 후원

- 모든 종류의 힌두교 단체들의 주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가 힌두교에 속했다고 주장합니다. 힌두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받고 있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사역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많은 경우,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성장이 계속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전달사역: 성경, 어린이 성경, 소책자, 훈련 교재, 주일학교 교재 자료 전달
 - 훈련사역: 박해대비 훈련을 비롯한 그룹별 훈련-목회자, 사역자, 여성, 청년, 어린이, 가정
 - SED사역: 생계지원, 지역개발, 성인글자교실, 직업훈련, 크리스천 긴급구호
 - 옹호사역: 법적 변호, 법률 세미나, 박해희생자를 위한 긴급 액션팀
 - 특별 프로젝트
- 인도는 현재 가장 큰 코로나19 피해국으로 특히 크리스천들의 생계가 어렵고 정부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아 오픈도어는 긴급구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 '아만' 목사님 이야기

아만은 30대의 목사입니다.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많은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따라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원으로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만의 가족은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아만의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여러 치료와 약을 썼으나 소용이 없어 가족들은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아만의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던 딸, 아만의 누나를 찾아갔을 때, 아만의 누나는 그 지역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만의 누나는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있는 동안, 성도들이 아만의 아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주었습니다. 아만은 누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예배 내내 앉아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다는 것과,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내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교회에 갔던 경험을 나누고 자기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아내, 아만의 어머니와 함께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집에서 첫번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병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도 취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리라는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본인도 자기의 신앙에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에 갔다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주시는 것을 본 이후로 쉬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병원 수술도 취소된 데다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채로 계속 기도를 하였는데, 놀라게도,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

어머니가 치유되고 회복되신 후에, 부모님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할지를 몰랐지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누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누나가 사는 도시로 가서 성경공부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에 나는 새신자에 불과했고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공부를 마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끝나갈 무렵, 교회 예배 중에, 목사님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지요. 그때 나는 그 의미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공부가 끝나고 아직 누나 집에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마을에서 시작하신 사역을 와서 도와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역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고향마을로 돌아가서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향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마을에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부모님과 내가 마을에서 성경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지 이삼 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킨다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땅 부자와 장로들이 우리 가족을 몰아내기로 결정했어요. 공식 통보를 하기 전에 몇몇 장로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마을에서 떠나라고 말했지요. 그들은 마을이 기독교 마을로 변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곧, 며칠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만들었지요.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땅 부자 집 딸이었어요. 아예 깨어나지 않을까봐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마을 의사들을 불렀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크리스천 성도들 몇 명이 기도를 받으라는 제안을 했고, 그 가족은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 도착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도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오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30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땅 부자집 주인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요. 그 소식이 이미 모든 마을에 퍼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소녀가 눈을 뜨고 울기 시작하더니 엄마를 찾았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없던 아이에게 의식이 돌아온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꼈어요. 그 사건으로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반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험과 도전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사역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픈도어 SED프로젝트와의 만남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다른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번번히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오픈도어에서 우리 마을 사역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마을의 다른 믿는 가족들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픈도어를 통해 우리가 LED 전구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기술로 조그만 사업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굳건하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인도하심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인도, '마헤쉬' 목사님 이야기

마헤쉬는 50대의 목사입니다. 40~50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네 명의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함께 삽니다. 아래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과 박해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얻은 생활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나는 아내의 치유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내는 몸에 마비가 왔고, 우리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 다녔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누님이 교회에 가곤 했었는데, 하루는 아내를 교회 예배에 데리고 가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나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전화를 통해 아내가 나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부부는 그 주일에 누

님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르심을 받다

다른 도시의 구두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향마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사는 고향마을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마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예배만 인도하시러 오시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성경에 대해 조금씩 더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제가 직업을 떠나 수입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때 일용직 노동일을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작은 수공업 공장에서 만든 옷들을 자전거에 싣고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파는 일도 했어요. 파는 개수에 따라 약간의 수당을 받았지만 생활은 계속 아주 어려웠어요.

거짓 고발과 체포

그러는 동안, 사역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에 부딪혔어요. 한 사건이 지금 떠오르네요: 제가 집에 있는데, 힌두 극단주의 정치지도자가 이끄는 사람들 한 무리가 와서 나에게 주일 모임에 대한 질문들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도 대동하고 왔어요. 나는 질문에 답을 했고, 그들은 나에게 이런 기도모임을 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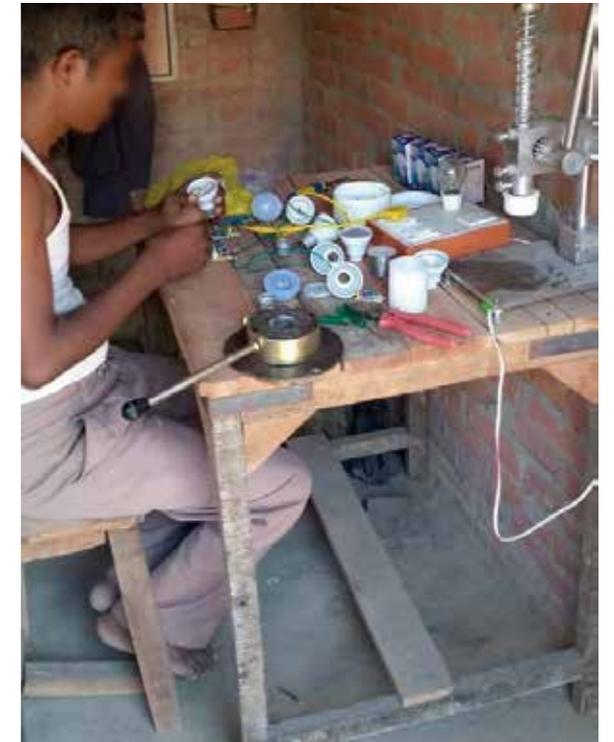
상 열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나는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지요. 얼마 후, 어느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데, 남자들이 들어와 예배를 중단시키고, 저와 성도들 몇 명을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강제 개종을 시켰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방 법원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주일 예배에 지역당국자들이 와서 예배를 감시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네 곳의 경찰서에서 나와서 우리 성도들 몇 명을 체포해가서는 허위 사실로 감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그들을 찾아가니, 경찰은 저까지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음날 보석으로 풀려났고, 허위 고발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박해사건들에 대해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을 끌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만, 우리는 고소를 취하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사역을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서에 있는 동안 당국자들이 자기들끼리 이 같은 목적을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픈도어 법률교실과 SED프로젝트와의 만남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고 저와 우리 가족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오픈도어 파트너가 제공하는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표적이 되어 박해를 받는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법률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경찰은 법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시도했



지만, 이제 나는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배웠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국자들 앞에서 나의 권리를 인용하며 진술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 덕분에입니다.

이런 허위 고발과 거짓 주장들에 대해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91편은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픈도어 파트너의 법률교육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입창출 프로젝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LED 전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이것은 우리 생계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저희를 도와주신 오픈도어 파트너들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경” 3,000개 배포

오픈도어는 2019년에 약 3,000개의 디지털 성경(오디오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성경은 성경책을 읽는 모습이 보이면 위험에 처하는 박해지역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여러 박해지역 교회는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 ‘들 수 있는’ 디지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디지털 성경이 삶에 미친 변화들에 대한 간증과 감사를 전합니다.



Deepa 디파 : 나는 이 디지털 성경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저는 글을 잘 못 읽거든요. 정말 좋아요. 또 가볍고 작아서 원할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은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이에요. 장작도 하고 그 밖에 다른 식물들도 얻으러 숲속에 가곤 하는데 거기서 디지털 성경을 몰래 들어요.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Akshay 악샤이 : 내 이름은 악샤이입니다. 우리에게 이 디지털 성경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위험할 때는 쉽게 숨길 수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전도자로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거든요. 오토바이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나는 디지털 성경을 들어요. 이 디지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Kadam 카담 : 우리 교인들 여러 명이 오픈도어가 주신 이 디지털 성경을 사용합니다. 글을 모르는 교인들부터 먼저 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분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어 아주 기뻐해요. 또 재미있는 동영상들과 간증들도 있어서 우리를 믿음에 견고히 세워주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알 수 있게 해줘요.

Raja 라자 : 내 이름은 라자예요.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일일 노동자인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내가 일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음악을 틀어 놓는데 나는 그런 음악이 싫어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이 디지털 성경을 들어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도움이 되지요.



Srikant 스리칸트 : 내 이름은 스리칸트입니다. 시골 교회 목사지요. 근처 여러 마을로 사역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 대부분 마을에 전기가 안들어와서 성경을 읽는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성경이 정말 도움이 되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이 디지털 성경을 우리 마을에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Sugam 수감 : 이 디지털 장치 안에서 여러 사진, 크리스천 영화, 성경 이야기들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요. 또 내 설교를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도록 영감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더해주세요. 서민들을 섬기는 모든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 장치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Rajneesh 라즈니쉬 : 이 디지털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전에 몰랐던 여러 성경이야기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눴습니다. 영화와 짧은 이야기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Sumanna 수만나 : 처음 이 성경장치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유용할지 몰랐었죠. 그런데 성경 삽화들과 성경이야기들을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이 디지털 성경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축복입니다.



Akash 아카쉬 : 저는 지난 10년간 저는 사역을 해왔는데 이런 도구는 처음입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영화와 이야기로 가르쳐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의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듣는데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여행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듣습니다.

아시아 박해지역 163,000명 긴급구호 구호의 두 번째 국면이 필요한 때

오픈도어 팀과 현지 파트너들은, 코로나(COVID-19) 위기가 시작된 후로, 아시아 박해지역 크리스천 163,000명 이상에게 필수생존 구호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봉쇄 조치들로 인해 일거리를 잃고 신앙 때문에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모두 영양실조와 심한 경우 아사의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오픈도어의 아시아 디렉터인 존 형제는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긴급구호와 구호품 전달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긴급지원의 두번째 국면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기술을 익혀서 작은 생업을 시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박해받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디렉터 존 형제는 전합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도움을 호소하는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어요. 그리고 그러잖아도 존재하는 차별과 박해를 코로나 위기가 증폭시키는 것이 분명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 정부의 지원이 마을에 전달되면, 마을의 힌두교도 공무원들이 크리스천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구호품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두 기본적인

아시아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자 각국 정부들은 봉쇄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지역 주민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 이주 근로자들, 공장 근로자들과 같은 빈곤층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 뿐 아니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과 함께 비누와 마스크와 같은 위생용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000 이 넘는 가정들이 구호품을 받았습니

다.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미얀마의 사역자는 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

코로나19 긴급구호 국가별 통계

국가	수혜 가구 수	수혜 개인 수
인도	14,750	76,000
미얀마	4,011	20,000
부탄	10	50
네팔	1,362	6,800
방글라데시	4,502	19,000
남부 필리핀	589	3,000
말레이시아	1,441	6,860
인도네시아	364	1,400
스리랑카	761	3,100
베트남	31	150
중아시아	2,500	12,500
비공개 국가들	3,000	15,000
총합계	33,356 가구	163,860 명

**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암판 피해 약 1,700 가구 지원 (약 1,400가구에 긴급구호품 + 약300가구 파괴된 집수리)

게 식료품을 전하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혹시 소요분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늘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구호 활동을 하다가 반란군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될 수도 있어요. 소요분자들은 불교 극단주의자들이고 크리스천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이들도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지 감시합니다. 또 마을의 이웃들 역시 크리스천들이 지원을 받는 것에 반대할 수 있어요.”

한 중아시아 현지 파트너는 전세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을에는 농아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아요. 그들은 정부 지원이 왔을 때 완전히 무시되었고, 죽지 않으려면 풀을 뜯어먹어야 하는 처지로 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

다. 여러분의 도움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인도 목사님 역시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 현금이 없어 저는 수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처지였어요.”

두 번째 국면

“각국의 봉쇄 상황이 지속되고 경제가 겨우 기능하는 한, 우리는 소외 당하고 박해 받는 아시아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구호를 계속 하겠지만,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두 번째 국면을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국면이란, 성도들이 스스로 약간의 수입을 만들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우리는 새로운 양재 수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성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게를 열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가지 파급효과들은 위기가 끝나고 한참 후

에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국면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박해받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레바논, 시리아 난민 새신자, 베이루트 폭발 후 '희망의 센터' 자원봉사



‘잘루크’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8월 베이루트 폭발 사건을 겪은 일을 간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에 저는 9달 된 우리 애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 예수, 예수!’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나를 여러 번 구해주셨지요. 나는 이번에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잘루크 가족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우유와 기저귀, 기타 생필품들을 희망의 센터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애기는 죽었을거예요.” 라고 잘루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잘루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일 그녀는 교회로 가서 베이루트 폭발사고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갑니다. 창문들은 아직도 부서진 채로 바다만 깨끗이 청소된 교회에서 샌드위치를 만든 잘루크는 “저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이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구호활동은 오픈도어의 후원이 미치지 전에 오픈도어 '희망의 센터' 들 중의 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란, 빅터 목사님 부부 형 확정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친 죄목으로 빅터 타므라즈(Victor Bet-Tamraz) 목사님은 2017년 7월에 10년형을 선고받고, 아내인 샴미람(Shamiram) 사모님은 2018년 1월에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고 오래 기다려왔는데, 결국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샴미람 사모님은 8월11일에, 8월16일까지 테헤란의 에빈 감옥에 입소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빅터 목사님은 다음달에 66세, 사모님은 12월에 65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두 분은 현재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안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에리트레아, 27명의 크리스천들이 석방되다

신앙 때문에 수년간 수감되었던 에리트레아 크리스천들 27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형제 19명과 자매 8명은 9월4일과 8일에 에리트레아 수도 아스마라 근처의 ‘마이 세르와(Mai Serwa)’ 감옥으로부터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주의 교회 또는 오순절 교회 성도들로, 재판 없이 4~16년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석방에 교회 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신앙 때문에 수백명이 장기로, 또 수천명이 단기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석방된 이들의 온전한 회복과 석방되지 못한 투옥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시리아, 북서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MBB 형제 납치



터키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 북서부의 라조(Rajo) 지역 자크마크 카비르(Jaqmaq Kabir) 마을에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라드완(Radwan 50세)형제가 터키군의 동맹 단체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Sham Legion)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납치는 라드완이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라드완의 아내도 이슬람에서 개종했고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장례를 방해하고 라드완을 납치하여 구금하고 배교로 고발했습니다. 이슬람 민병대는 배교를 이유로 처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드완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 크리스천 간호사 피살, 목회자와 가족 공격 증가

편잡 지방, 구르다스푸르에 있는 한 사립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 간호사 조티 마시(Jyoti Masih 21세)가 지난 8월 16일 병원 구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교회 리더들에 의하면, 그녀는 다리에 여러 자상을 입고 오른팔에 독극물 주사기가 꽂혀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자살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편잡 지방에서 7월 말에는 한 목사(Balwinder Bagicha)가 머리를 흉기로 찢린 채로 도로에 쓰러져 이튿날 숨졌습니다. 8월11일에는 하리아나 주의 파리다바드 시에서 힌두과격파들이 오순절 교회 라제쉬 굽타(Rajesh Gupta) 목사 가족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스천 여성과 목회자들에 대한 살해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후원요청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시아 박해지역에서 163,000명이 코로나19 긴급구호를 받았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15,000가정에 긴급구호가 진행 중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크리스천이 다수인 국가이지만 북동부 해안지역 성도들은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7일, 이 지역에서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118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픈도어는 그 희생자 유가족들을 계속 도와왔고, 이번에 코로나 구호품도 전달했습니다. 계속되는 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실직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300 기도용사" 가 되어주세요!

매주 전세계 박해받는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부탁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과 승리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sk@opendoors.or.kr

www.opendoors.or.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